

사회

스마트폰 성매매 창구 악용

‘만남’ 어플 통해 사진·위치 전송... 필터링 강화 등 대책 시급

청소년들 음란 동영상·사진 접촉 제재없어

스마트폰의 음란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이하 어플)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 수법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기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에 비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가입한 청소년 7만5000여명 중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가입자는 4.6%(34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청소년 가입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명 ‘앱스토어’(어플을 다운로드 받는 마켓)를 통해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이 포함된 어플을 아무런 제재없이 접촉하고 있다. 기존 휴대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을 통해 음란물 접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의 새로운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가 ‘후즈히어(Whos Here)’나 ‘하이 데어(Hi There)’ 등의 ‘만남’ 어플을 성매매의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들 어플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한 또다른 스마트폰 사용자와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들 어플은 스마트폰 사용자 간 거리를 알 수 있어 ‘즉석’ 만남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일보 기자가 이들 ‘만남’ 어플에 접속해 본 결과 상대방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플의 기능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찾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가 ‘후즈히어’에 접속한 지 10분 가량이 지나자 속옷 차림 등 4장의 사진을 올려놓은 여성과의 접촉이 이뤄졌다. 이 여성은 자기소개란의 Gender(성별)과 Age(나이)란에 각각 ‘Female(여성)’과 ‘19’라고 적었으며, 거리는 4.1km 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여성에게 문자로 일명 ‘조건 만남(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만남)’이 맞는지 확인하자 여성은 ‘잘 아네’라고 응답했다. 이후로도 이 여성은 대화 도중 자신이 목고 있는 모델과 알몸 사진까지 찍어 전송하기도 했다.

또 이날 ‘후즈히어’에는 이 여성 외에도 일부 여성들이 속옷이나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올려놓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스마트폰이 이성간의 단순한 ‘만남’의 단계를 넘어 성매매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등이 이를 확인하고, 적발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터넷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데다 성매매 관련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빨리 스마트폰 시스템과 각종 어플 등에 대한 필터링 강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30년 이상 학교건물 안전사고 위험 방치

광주 초·중·고 안전진단 17% 그쳐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건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생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진선거 의원(민주·북구 1)은 15일 “학교 건물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 3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되지 않고, 안전진단 자체도 부실해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 일선 학교 가운데 노후건물은 ▲50년 이상 9동 ▲40년 이상 27동 ▲30년 이상 50동 ▲20년 이상 119동 ▲10년

이상 185동 등 총 390동에 달하고 있지만, 이 중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은 고작 26동(6.7%)에 불과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86동 중 정밀 안전진단을 한 건물은 15개 동(17.4%)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동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최근 5년간 학교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D등급이 6건에 달해 조치를 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건물 71동은 비용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니원침 (8170) 김중두



베트남 노동자 원룸서 숨겨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원룸에서 베트남인 L(30)씨가 숨겨있는 것을 함께 사는 베트남인 직장 동료(2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L씨가 심장 질환으로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공시생’ 어머니 꾸지람에 집 불질러

○~30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화끈에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불을 질러 경찰서행.

○~1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2)씨는 전날 새벽 1시25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A4용지 100여장에 불을 붙여 바닥에 깔려있던 장판 일부를 태웠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6년 광주 모 전문대를 졸업한 뒤 4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이씨는 평소 어머니(67)로부터 “너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공부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주길래 화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축사에 불... 소구하려다

농민 화상 중태

불이 난 축사에서 소를 구하려던 농민이 화상을 입어 중태다.

15일 새벽 2시40분께 보성군 보성읍 박모(63)씨의 축사에서 불이나 박씨가 3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축사에 있던 한우 10마리 중 7마리가 불에 타 죽고 축사 132㎡ 중 66㎡가 소실돼 3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박씨는 축사에서 10여m 떨어진 집에서 자던 중 불이 난 것을 보고 자신의 소를 빼내기 위해 축사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아내가 119에 신고를 하는 사이 축사로 들어갔으나 불이 이미 번져 숨까지 3마리를 구한 뒤 쓰러졌다.

경찰은 “곰곰히 만들기 위해 건조기를 틀어놨다”는 박씨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전기 누전에 의해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교통질서 지켜주세요” 1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앞 사거리에서 북구청 주관으로 열린 ‘병아리 교통캠페인’ 행사에서 주부순찰단원들이 노란색 병아리 복장을 한 유치원생들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사 수주 대가 내놔” 행패 순천 조폭 3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공사 수주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 사무실 등에서 행패 부린 순천 조폭 3명(44)씨 등 3명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순천시 조례동 S건설사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 400만원 상당의 집기를 부수고, S사 대표 황모(51)씨

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지난 5월께 광주 모 건설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 중 41억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황씨의 업체가 수주받도록 해준 뒤 그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하며 행패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대 총학생회장 5년만에 경선

비운동권 대 운동권

전남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5년 만에 경선 체제로 치러진다. 15일 전남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2011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박은철 후보(산림자원조경·98)와 윤주삼 후보(경제·07)가 최근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복수의 후보자가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5년 만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총학생회장 선거는 비운동권 대 운동권의 대결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 동안 뽑지 못했던 총학생회장도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총학생회장은 2006년 후보가 있었으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선출하지 못해 이후 2010년까지 후보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이번 총학생회장에는 양해지 학생(영어영문·09)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선거는 23일 치러지며, 50% 이상의 투표율에 50% 이상의 득표를 얻는 후보가 학생 대표로 선출된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심야에 취객 ‘퍽치기’

강도상해 2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5일 심야시간대 도심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이른바 ‘퍽치기’를 한 김모(22)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모 편

의점 앞길에서 취객 이모(58)씨의 머리를 돌맹이로 때린 뒤 현금과 수표 등 180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5차례에 걸쳐 ‘퍽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6일 오후 4시40분께 동구 대인동 자신이 투숙하는 한 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15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현금 67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2월 1일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	-----------------------------------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청도시청 영화사관 콜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언스토퍼블 (12세)	1관 초능력자 (15세)
2관 심야의FM(18세)/데블 (15세)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부당거래 (18세)	3관 불량남녀 (15세)
4관 부당거래 (18세)	4관 가디언의 전설 (전제)
5관 대지진 (전제)/초능력자 (15세)	5관 나탈리(18세)/돌이킬수없는 (15세)
6관 불량남녀 (15세)	6관 레드(15세)
7관 레드(15세)	7관 초능력자 (15세)
8관 불량남녀(15세)/돌이킬수없는(15세)	8관 언스토퍼블 (12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9관 부당거래 (18세)
10관 초능력자(15세)	10관 대지진 (전제)/데블 (15세)
11관 초능력자(15세)	11관 언스토퍼블(12세)/소외형에 여행하는법 (15세)

항토시영! 영화시영! 매일 심야시영 /호남최대주최장 / www.cinuso.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최고급관

M관 초능력자 (15세)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레드 (15세)/초능력자 (15세)
4관 언스토퍼블(12세)
5관 기디언의 전설(3D)/전제/초능력자 (15세)
6관 불량남녀 (15세)
7관 초능력자 (15세)
8관 부당거래 (18세)
9관 초능력자 (15세)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 상영요금 부과

CINUS

1관 부당거래 (18세)
2관 초능력자 (15세)
3관 불량남녀 (15세)
4관 심야의FM(18세)/ 데블 (15세)
5관 레드 (15세)
6관 언스토퍼블(12세)
7관 초능력자 (15세)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so.co.kr
세니서전대3D(4K)상영!!